

# “韓 중심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창업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 ‘컴업 2023’ 본격 개막

글로벌 35개국서 700여명 참석  
사우디·UAE 대규모 사절단 방문  
이영 장관 “국경 없는 취·창업  
지원위해 관련 비자제도 완화”

대한민국이 만들어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컴업(COMEUP) 2023’이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시작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컴업 행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베트남 등 35개국에서 7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사우디와 UAE에서 대규모 사절단이 방문했다. 해외 스타트업 비중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0% 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100여 개의 해외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 존’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국경 없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취업 비자제도를 완화하고 2024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할 것”이라며 “전 세계 스타트업이 물리적 공간 제약 없이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컴업 행사는 사흘간 컨퍼런스, 오픈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 2023’이 열리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컴업(COMEUP) 2023’에 참석해 참여부스들을 둘러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이노베이션, 컴업스타즈,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콘퍼런스 세션인 퓨처토크는 ‘꿈 많은 그대 정말 창업할텐가?’와 ‘글로벌 진출, 그 오해와 진실’ 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주제로 구성됐다. 상반기 가장 주목받는 뮤지션이며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신드롬즈’를 창업한 지올과을 시작으로 20여개 주제에 70여명의 연사가 참여해 3일간 진행된다.

행사 둘째날은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로 지정됐다. 엔비디아, 다쏘시스템,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라우드 등 20여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스타트업과 협업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협업 모델 발굴 등 스타트업과 상생의 무대 개최로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 탄생 20주년도 기념한다.

평균 7.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

된 컴업을 대표하는 혁신 스타트업인 컴업스타즈의 부스와 IR(기업설명회) 피칭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국내외 벤처캐피탈(VC)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160개 이상의 벤처캐피탈과의 비즈매칭도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 에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미래를 조망하는 ‘K-글로벌 클러스터 2023’이 같은 날 개막해 역시 사흘간 행사를 진행한다.

‘K-글로벌 클러스터 2023’은 규제자유특구가 도전과 창의, 그리고 글로벌 협력에 기반한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확대 개편한 행사다.

개막식에선 우수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상을 받았다. 또 개막식에 이어 한불 코스메틱 협

력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로레알 그룹의 북아시아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로레알 빅뱅 오픈이노베이션’ 시상식도 진행했다.

‘로레알 빅뱅 오픈이노베이션’은 북아시아 한·중·일 주요 3개국 뷰티 시장 ‘뷰티 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선 중기부와 로레알이 혁신적인 디지털 및 뷰티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한다.

관련 오픈이노베이션은 최종적으로 1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스마트 자외선 차단량 측정기를 개발한 모션뱅크, 아크포레이션(AP) 화장품 유효성분 흡수 촉진기술을 보유한 이지템이 우승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로레알 그룹과 해외 실증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사업 기회 부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

사무엘 뒤리테일 로레알코리아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혁신 생태계가 지닌 다채로운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고 이는 로레알코리아에도 큰 영감이 됐다”며 “앞으로도 로레알코리아는 한국의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뷰티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크-앙투안 자메(Marc-Antoine Jamet) 코스메틱 벨리 이사장(LVMH그룹 사무총장)과 코스메틱 분야의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 증진을 위한 협정도 체결했다.

코스메틱 벨리는 1994년 설립된 세계 최초·세계 최대의 뷰티 분야 산학연 클러스터로 LVMH, 로레알, 겔랑 등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 등 100여개의 기업이 집적돼 있다. 대학과 연구소 8600명의 연구자들이 화장품 원재료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화장품 관련 전 분야의 연구개발과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장관은 “화장품 산업은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원료, 제품개발, 포장, 공정, 마케팅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밸류체인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산업”이라며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뷰티 분야 협력은 사업적 성과 창출을 넘어 양국 국민들의 상호이해 증진과 문화교류 확대까지 이어져 세상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미래여성 CEO 글로벌 비즈니스 탐방 성료

여경협, 여학생들과 실리콘밸리 탐방  
구글·인텔·플러그 앤 플레이 등 찾아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마련한 선배 기업인과 미래 기업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견학 일정이 성황리에 끝났다.

8일 여경협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5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진행된 ‘2023년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글로벌 비즈니스 탐방’이 마무리됐다.

창업, 취업을 희망하는 여학생들에게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여경협의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통해 선정한 18명의 여고생·여대생과 이정한 여경협 회장 등 선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 진행한 ‘2023년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글로벌 비즈니스 탐방’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성CEO들이 참가했다.

탐방단은 실리콘밸리 등에 있는 구글, 인텔, 애플,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이그나이트 XL(Ignite XL) 등 여성기업을 방문해 미국 시장에서의 창업 노하우와 한인 여성기업의 경영사례를 배우는 시

간을 가졌다.

또, 글로벌 창·취업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해 ▲산타클라라한인상공회의소 ▲르네상스 여성 비즈니스 센터(Renaissance Women Business Center) 등 미국 현지 창업을 지원하는 유관 기관과 스탠포드대학교도 방문했다. /김승호 기자

## 중소기업계, ESG 경영 실천방향 모색

### 중기중앙회

중소 탄소중립·ESG 위원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ESG 경영 실천방향 모색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오후 인천 서구에 위치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 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ESG 확산과 증가하는 공급망 실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전략 논의, 지원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 및 업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훈 위원장(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창호 한국PLC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문희봉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병수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한상원(사)한국가사전문검사기관협회장 등 업종별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견학과 ESG 선도 중소·중견기업의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 기보, K-택소노미 인증제도 도입

중소 녹색경영 지원등 앞장

기술보증기금이 녹색금융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K-택소노미(K-Taxonomy)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8일 기보에 따르면 ‘K-택소노미’는 한국의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고 더 많은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와 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기보는 지난해 10월부터 택소노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키워드 선택방식으로 실무자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KTAS(KIBO Taxonomy Application for SMEs) 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수행해 미비점들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착한 침대’ 시몬스, ESG 경영부문 대상 수상

업계최초 ESG 뷰티레스트 1925 출시

시몬스가 ‘2023 대한민국상품대상’에서 ESG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상품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가 지난 1997년부터 주최해 온 행사로 올해가 23회째다.

8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시몬스만의 브랜딩 역량을 ESG에 접목해 그동안 업계에선 볼 수 없었던 참신한 ESG

행보를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몬스는 올해 2월 업계 최초로 ESG 침대 ‘뷰티레스트 1925’를 출시하면서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를 구축했다.

이 침대는 판매할 때마다 소비자가 가격의 5%를 2025년 완공 예정인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센터 리모델링 기금으로 누적되는 ‘착한 침대’다. /김승호 기자